

아일러트 헤름스의 사회윤리학에서 교회의 정치 참여와 한국 교회

이영태(독립 연구자)

- I. 들어가는 말
- II. 복음: 자유케 하는 동시에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진리
 - 1. 진리, 이해, 확신
 - 2. 복음의 진리와 자유로움
 - 3. 인간의 자유를 한정하면서 행위 선택을 위한 탁월함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
- III. 교회와 다원적인 사회: 교회의 정치 참여 방식과 형식상 목표
 - 1. 복음의 도구인 지각 가능한(경험 가능한) 교회, 그 표지와 제약
 - 2. 헤름스의 기독교 사회 이론: 기독교적인 사회 이해
 - 3. 참여 방식과 형식상 목표
 - 4. 구체적인 참여 방식: 복음 선포
- IV.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기독교 정치 이론: 두왕국론
 - 1. 두왕국론의 일반적 의미: 은혜의 특수성과 창조 일반성
 - 2. 두왕국론: 윤리적-사상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요구하는 기독교 정치 이론
- V. 헤름스의 사회윤리학과 한국 교회, 그 시사점과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 1. 시사점
 - 2. 해결해야 할 문제
- VI. 나가는 말

• ABSTRACT •

The Church's Political Participation in Eilert Herms' Social Ethics and the Korean Church

Independent Researcher, Lee, Young-Tae

Political participation is unavoidable for the visible church as a social reality within society. While such engagemen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church to manifest the public power of the gospel and contribute to the common good, it requires a theoretical framework capable of interpreting the dynamic structures and historical conditions of a pluralistic modern socie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ocial theory and the Two Kingdoms doctrine of Eilert Herms and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litical engagement within Korean church and theology.

Herms's social theory defines the formal aims of the church's political participation by situating the church within the religious functional system of society, through which it may influence other functional systems. His Two Kingdoms doctrine presents the substantive aims of such participation by articulating God's two modes of governance and calling the church to responsible political engagement for the sake of a pluralistic society. Together, these perspectives invite critical reflection from churches that have lost social credibility through their political involvement.

Key words: Eilert Herms, Church Political Participation, Gospel, Social Ethics, Two Kingdoms Theory, Pluralism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에는 칠팔십년대 군부 독재 시대와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특정 그룹에 속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사안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참여가 간편화되고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대중화의 풍조는 단지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어떤 식으로든 단절되어야 할 것 같은 교회에서도 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

한때는 교회의 정치 참여를 터부시했던 한국 보수 개신교 역시 2004년에 추진되었던 “개정사립학교법”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¹⁾ 2007년 대선 다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명박 후보 공개지지, 2019년 이후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한 보수 개신교 정치 행동²⁾ 등에서 보듯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심하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교회의 정치 참여가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신학, 그중에서도 기독교적 사회 질서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윤리학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 참여가 특별한 어떤 것이었던 과거에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찬성이나 거부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경험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원론적이고 다소 선언적인 대답으로는 독자나 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대답이

1) 배덕만,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3,” 『한국교회사학회지』 43(2016), 203.

2) 김장생,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 『문화와 사회』 28/3(2020), 139.

현실에서 구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미 경험되었거나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은 정치와 관련해서 교회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의 내·외부 모두의 시선으로 보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은 신학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역동적인 구조와 역사적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고 수행할 수도 있는 과제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던 독일 튀빙엔 대학교 기독교 사회윤리학 부문의 은퇴 교수인 아일러르트 헤름스(Eilert Herms)가 어떻게 진리, 확산, 자유, 행위, 상호작용 규칙, 경험 가능한 교회, 사회 등의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창적이며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이론인 두왕국론을 기독교와 신학이 다원적 질서를 옹호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헤름스의 이론이 한국의 현상황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복음: 자유케 하는 동시에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진리

교회는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출발점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 신학적 논의의 출발점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롬 1:16)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 근원, 인간됨과 관련된 오해와 무지에서 해방하여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자녀의 자유로 한정한다. 이러한 자유

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궁극적 목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유케 하는 확신에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복음 진리의 내재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

1. 진리, 이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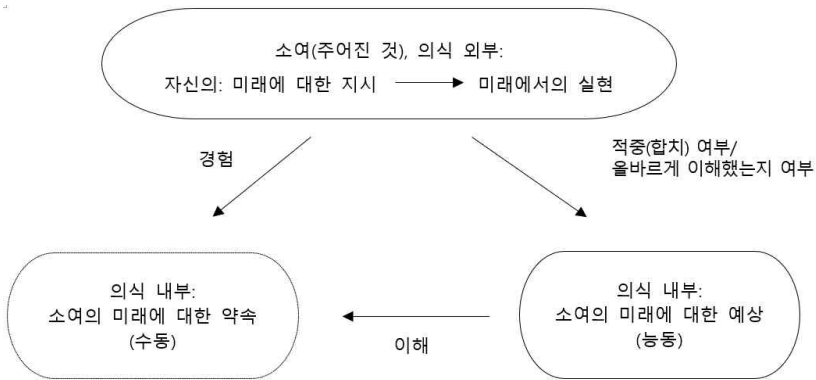
진리(참)란 현상학적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이해 작용과 그 결과가 가지는 특정한 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 작용의 결과가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소여 또는 대상)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는 인식 내용이 인식의 대상과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것을

-
- 3)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진리’라는 용어가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형용사의 뒤에 접미사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 사실인, 참인, 맞는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 true(영어) 또는 wahr(독일어)의 뒤에 접미사(영어: -th, 독일어: -heit)를 붙이면 진리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영어: truth, 독일어: Wahrheit)가 된다. 즉, 형용사인 true 및 wahr와 그 명사형인 truth, Wahrheit 간에는 명확한 연속성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명사인 진리의 형용사는 진리인이 아니라 사실인, 참인, 맞는 등이다. 즉, 우리말에서는 진리의 명사꼴과 그 형용사꼴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영어나 독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도 없다.

또한,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진리, 진실, 참이 모두 truth 및 Wahrheit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반면 우리말에서는 이 단어들이 문맥에 따라 (사실에 관련되었는지, 원리 또는 참인 명제 체계에 관련되었는지, 진술에 관련되었는지) 서로 다르게 사용되며 이들이 서로 뒤바뀌어 사용되었을 때는 뭔가 어색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단어를 진리, 진실, 참으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 단어들의 쓰임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에서의 쓰임새와도 단절이 되어 오히려 혼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상 진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괄호를 열어 그 용례에 대해 보충하겠다. 즉, 사실과 관련된 경우 진리(진실), 원리 또는 명제 체계와 관련된 경우 진리(체계), 단일 명제 또는 진술과 관련된 경우 진리(참)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 참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리 또는 진리(참)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겠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헤름스는 인식에서 공간 차원이 아닌 시간 차원을 우위에 두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합치라는 성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



〈그림 1〉 이해

즉, 이해를 의식 내부에 있는 관계항과 의식을 초월한 외부 공간에 존재하는 관계항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간적 가교가 아니라, 삶현재라는 경험 영역에 속한 두 관계 사이의 관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이해는 i. 어떤 사태(소여, 주어진 것)에 포함된 미래에 대한 지시와 그 지시의 실현 여부 간의 관계⁵⁾ 그리고 ii. (소여가 주어짐을 통해 의식 내부에서 생겨나는 약속)

4) Herms, Eilert, *Phänomene des Glaubens. Beiträge zur Fundamental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52 이하.

5) 예를 들면, 뜨거운 물(주어진 것, 소여)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는 미래에 대한 지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시는 시간이 지나서 뜨거운 물이 식으면 성취된다. 즉, 여기서 뜨거운 물에 내포된 뜨거움 미래에 대한 지시와 그것이 식음을 통한 지시의 성취가 관계항을 이룬다.

6) 헤름스는 의식 외부에 있는 사태의 지시와 구분하기 위해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위의 책, 152.

과 (이러한 약속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예상**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⁷⁾ 이 관계에서 삶현재에서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형성된 예상이 전소여(사전에 주어진 것, 예상의 대상이 되는 소여 또는 사태)에 포함된 미래에 대한 지시(약속)를 지향하고, 또 소여의 미래 상태(지속이나 변화, 지시의 실현)가 그 예상과 합치하는 경우 이 예상은 적중한 것으로 간주된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란 경험을 기반으로 소여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하도록 주어진 소여 자체에 포함된 미래에 대한 지시(약속)를 포착하고 그 미래를 올바르게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예상이 소여의 미래(지시의 실현)와 합치하는 경우 그 이해는 진리(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진리(참), 즉 올바른 이해가 반복적으로 경험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리(참)가 내재화가 된다. 이렇게 진리가 내재화된 상태를 우리는 확신이 있다고 표현한다.

2. 복음의 진리와 자유로움

복음에 대한 믿음 역시 진리(참)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확신의 한 형태이다. 이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 역시 진리(참) 여부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이해의 대상으로 경험을 통해 예상의 적중 여부가 검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적 믿음과 마찬가지로

-
- 7) 우리는 뜨거운 물은 식는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에는 미래에는 식는다는 약속을 받는 것과 같다. 이해란 이러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올바른 이해는 물이 식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예상이 소여된 물이 식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 8) 헤름스에 따르면 능동적인 이해의 적합함 여부를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어지고 그 자체에 포함된 약속에 대한 예상과 그 성취 여부로 보는 견해는 매우 성서적일뿐 아니라 칸트의 후계자들이나 그 비판자인 슐라이허마허, 헤겔, 후설, 하이데거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였다. 위의 책, 153

복음의 내용 역시 예상의 적중 여부가 다른 종류의 이해 대상(사태진리)에 비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복음의 내용이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는 이해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헤름스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종교적 확신을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다가오는 세계와 인간의 기원(근원)에 관한 확신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검증 가능한 이해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매체로서 계시를 상정하고, 종교적 확신이 가지는 다른 확신들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진리(참)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형식에 따라 a. 이해진리와 b. 사태진리로, 그리고 b. 사태진리는 다시 그 내용에 따라 b-1 자연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태진리(이하 자연관계 사태진리), b-2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태진리(이하 자기관계 사태진리), b-3 근원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태진리(이하 근원관계 사태진리)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b-3 근원관계 사태진리와 b-1 자연관계 사태진리 및 b-2 자기관계 사태진리는 동-근원적이며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분리할 수 없도록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는 b-3 근원관계 사태진리 역시 b-1 자연관계 사태진리 및 b-2 자기관계 사태진리와 동일한 영역에 속한 이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⁹⁾

1) 이해진리와 사태진리: 이해진리의 구체적 내용인 사태진리 구체사

헤름스는 진리(참)를 형식상 능동적인 작용과 순전히 수동적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기 이해진리와 사태진리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9) 위의 책, 158 이하

이해진리란 우리의 능동적인 이해와 그 결과의 특질(특정한 질)로, ‘진리(참)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태가 우리를_위해_그곳에_있음(주어져 있음, 소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사태진리는 이러한 이해진리의 구성요소, 즉 이해의 대상으로 순전히 수동적으로 이해되도록 주어진 현상의 특질을 의미한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주어진 것(소여)에는 자신의 미래를 지시하는 특성이 있다. 지시한다는 것은 빨간색이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된다거나 아침이 되면 밝아진다는 것과 같이 어떤 고유한 특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태진리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특성의 지속됨에 대한 지시(약속)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을 통해 구축된 주어진 것(소여)의 고유한 특성이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다.¹⁰⁾

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태진리는 우리의 적합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요구하는 것의 총체로 개인적인 삶현재의 개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현존하고 있으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해해야 하며, 선택을 통해 변화시켜야 하며, 그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구성해야 하는 우리 존재 가능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능동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현재를 이해하고, 규정하고,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태진리의 구체자¹¹⁾는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어지는 삶현재의 규정성(경험된 규정)¹²⁾이라고 할 수 있다.¹³⁾

10) 위의 책,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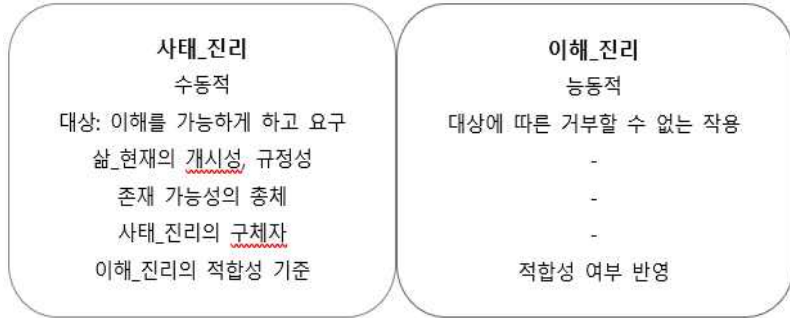
11) 木田元, 野家啓一, 村田純一, 鷺田清一, *現象學事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서울: 도서출판 b), 2011, 389.

12) 위의 책, 43.

13) Herms, Eilert, *Phänomene des Glaubens. Beiträge zur Fundamental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56 이하.

또한 사태진리의 구체자는 우리의 이해, 규정, 구성 활동의 결과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한다. 적합성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사태진리는 적합한 이해 활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 활동이 필요한 수준의 적합성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이해 결과의 진리 여부(참 또는 거짓)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이후의 이해 활동에 진지하게 반영하고, 참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¹⁴⁾

따라서 우리에게 내재화되어 확신으로 굳어지는 사태진리의 구체자에는 항상 우리가 이해, 규정, 구성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의 진리(참) 여부가 포함된다.¹⁵⁾ 이는 근원관계 사태진리도 마찬가지이며, 마찬가지로여야 한다.



〈그림 2〉 진리

14) 사태_진리의 구체자는 이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해_진리를 평가하고, 병합하고, 통합하도록 한다. 그 결과 진리의 내재화, 즉 확신(확실성)은 동적이며, 비대칭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Herms 2006, 157.

15) 위의 책, 157.

2) 사태진리와 인간의 자유로움

사태진리는 우리의 삶현재에서 발견되는 관계 구조에 따라 내용상 자연관계 사태진리, 자기관계 사태진리, 근원관계 사태진리로 분류된다.¹⁶⁾ 이 세 차원의 사태진리는 동근원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¹⁷⁾ 이러한

16) 신적 및 사회적 필요의 충족과 관련되는 자연관계 사태진리는 삶현재에서 감각적으로 매개되는 지각 가능한 사실(Ereignis)과 관련된다. 이 사태진리에 대한 이해의 적합성 기준은 삶현재가 지속되는 동안 예상이 적중했음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적 현존 가능성의 공간에 대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기관계 사태진리의 지시(약속) 구조는 과거에 경험된 삶현재의 명확성이 미래의 삶현재에 대한 특정한 지시(약속)로 경험되는 것으로, 적합성 기준은 단순히 감각적으로만 매개되지는 않는 (나의 또는 공동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근원관계 사태진리는 나를 포함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현재가 근원적 힘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보존(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삶현재의 보존(유지)에 관한 진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태진리의 지시 구조에서는 근원적 힘에 의해 정립된 절대적인 과거가 절대적인 미래를 지시(약속)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미래는 이민 절대적인 과거에 내포되어 있으며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역사적인 삶현재에 속하지 않지만, 근원적 힘에게는 현재에 해당된다. 위의 책, 168.

이 사태진리의 경우 근원적 힘에 의해 정초된 절대적인 과거에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것(소여)을 벗어나는 절대적인 미래에 대한 지시(약속)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현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원과의 관계(이하 근원관계) 자체는 계시라는 불가침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원관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현재의 정립된 존재로서 근원적 힘의 존재 본질과 의지, 섭리의 자기현현으로 나타난다. 이 사태진리는 근원적 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근원관계는 근원적인 힘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책, 168) 이 사태진리에서도 약속과 성취가 이해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태진리 역시 이해의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근원관계 사태진리가 계시된 복음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초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완전하게 인식하여 우리가 창조주의 의지와 궁극적 목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삶의 목적, 즉 영원한 복락(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진술한다. 기독교 믿음은 이러한 사태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즉, 자연과의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를 결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 한정된다. 자연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인과 관계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근원과의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자연과의 관계가 포함된 자신과의 관계는 한편으로 근원과의 관계를 결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원과의 관계 자체에 의해 한정된다.

상호 연관 관계로 인해 진리에 대한 확신의 복잡한 결합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움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의 삶현재와 함께 주어진 역동적이며, 비대칭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태진리와 이해진리의 연관 관계에 의해 자유로움의 모든 형태가 정초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자유의 내용과 형태는 우리의 이해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확신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움은 인간됨의 모든 차원, 여기서는 자연 관계, 자기관계, 근원관계 모두와 관련된다.

먼저, 자연관계에서의 자유로움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자유로운지 여부와 그 정도가 결정된다(예: 과학 기술, 각종 기계, 과학적 지식 등에 의해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 이는 자신과의 관계 및 근원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과 관련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들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으로 개인적인 삶에게 가능성의 공간인 사회와 관련된다(예: 법률이나 심리학 등에 의한 지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은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과 관련이 있으며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상대적 의존 관계에서의 자유로움) 및 근원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근원적 의존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근원관계에서의 자유로움은 절대적 과거의 주어져 있음에 내재된 절대적 미래에 대한 지시(약속)에 대한 확신에 의해 정초 및 형성된 자유로움으로, 세상적인 형태의 자유로움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근원관계에 관련된 사태진리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현재에 내재된 자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되고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새로워진다. 근원관계에서의 자유로움은 한편으로는 자연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피조물로서의 자유로 규정한

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현존의 근원, 구성 틀, 궁극적 목표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이러한 사태진리에 관한 확신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및 오해에서 해방시킴으로써¹⁸⁾ 이와 관련된 자유를 한정한다.¹⁹⁾

사태진리	지시 구조	매체	적합성 기준	자유로움의 형태
자연과의 관계	주어진 삶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됨	감각적으로 매개되는 '지각 가능한' 사실	삶현재가 지속되는 동안 예상의 적중이 감각적으로 드러남	신체적, 사회적 필요 충족시키는 데 있어 자유로움

18) 헤름스에게 이러한 무지와 오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복음의 진리는 세계가 우리의 인간됨의 근거가 되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재라는 오해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세계가 절대적 실재라는 이러한 오해는 이 세계가 다양하게 가능한 세계 중에서 창조주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유지되고 있는 우연하고 소멸하는 실재라는 생각으로 바뀐다. 둘째, 복음의 진리는 근원적 권능자에 대한 오해에서 해방한다. 즉, 이 세계에서 근원적 권능자의 활동과 존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하고, 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있다는 오해 대신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언한 진리가 자명해짐을 통해 전해진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구원사적 돌보심의 경험이 들어간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를 전전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를 포함하여 모든 좋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삶에 대해 주관적인 의미 창조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믿는 우리 현존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한편으로는 창조주에 의해 부여된 목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체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에 다다른 방법으로써 삶의 기회를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포착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체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해방됨으로써 마지막 것과 마지막 전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모든 계획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기술, 학문, 문화)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부당한 주장이 힘을 잃게 되고, 그들의 참된 삶의 목적을 순수하게 섬기는 기능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들의 섬기는 기능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7.

19) Herms, Eilert, *Phänomene des Glaubens. Beiträge zur Fundamental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69.

자신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	과거에 경험된 규정성(인간의 삶현재의 형태)이 전체적으로 미래의 일정한 규정성을 약속함	감각적으로 매개되지 않는 공동의 경험	스스로의 경험(타인의 증언에 의해 매개된 경우에도)	인간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로움
근원과의 관계 (근원적임 함과의 관계)	절대적인 과거에 근원적 힘에 의해 확립된 절대적인 미래에 대한 약속	계시	대답할 수 없음 또는 자신 또는 인간의 삶현재가 보존(유지)되고 있음	세상적인 형태의 자유로움에서 자유로움

〈그림 3〉 사태진리와 자유로움

3. 인간의 자유를 한정하면서 행위 선택을 위한 탁월함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불확실성과 오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한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정한다는 것은 보충요소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정은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어 보충 요소 없이는 그 개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한정의 일환으로 헤름스는 인간의 자유를 피조물이 가진 유한한 자유로 한정한다.²⁰⁾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를 통한 해방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포함된다. 하지만 헤름스에게 있어 기독교인의 자유는 단순히 오해 및 불확실성에서의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기도 하며 또 구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자리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상황, 즉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행동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택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 상황과

20)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4 이하.

그 결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동반되는 책임 및 이익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²¹⁾ 하지만 헤름스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탁월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택 상황에서는 선택되는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선택된 것이 선택되지 않은 것보다 더 탁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당한 선택은 탁월함에 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본인에게 더 탁월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정을 내리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특정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원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 부분에서 궁극적 기준으로 선택 상황에서 선택하는 개인이 가진 탁월함에 대한 기준들에 영향을 미침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헤름스는 근원에 대한 확신은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태초에 근원적인 힘에 의해 이미 세워진) 최종 목표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으로 내용상 우리의 삶현재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즉 사회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삶이 속해 있는 세계 또는 우주(인간 의식의 가장 큰 단위)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 안에서 이해한다.²²⁾

21)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선택하였다면 이러한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해당 선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22) 이러한 근원에 대한 확신은 전통과 삶의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각각의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족이나 종교 공동체 또는 예술, 문학, 철학 전통 속에 녹아 있는 사상적-윤리적 확신의 증언을 통해 사회적 전통을 접하게 됨으로써

근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따르게 되는 가치나 기준 또는 대상이 생기도록 한다. 이러한 확신에는 특히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사상적·종교적 확신이 해당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근원에 대한 확신은 복음에서 드러난 진리(참, _진실, _체계)에 대한 믿음이다.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와 현존재의 근원과 궁극적 목적에 관한 진리이며, 그 내용은 인간과 세계의 근원과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의 연합, 화해,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의지에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신은 세계 및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 따른 행동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우리 현존의 근원, 구조, 목표와 관련된 무지와 오해로부터 해방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우리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자유를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인간의 제한된 자유로 한정한다.

자유케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의 시대나 바울의 복음 전파를 직접 들었던 초대 교회 시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이렇게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가능하고, 가능할 이유는 무엇일까? 헤름스는 그 이유가 교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복음의 능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에는 우리가 삶 자체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상적·종교적 확신 중 하나가 한 사람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위의 책, 241.

23) 위의 책, 5.

세워지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 교회가 존속함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자유케 하는 복음의 도구로 이땅에서 복음을 통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⁴⁾

III. 교회와 다원적인 사회: 교회의 정치 참여 방식과 형식상 목표

교회는 과정 중에 있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에 관한 진리, 인간과 세계의 역동적인 구조에 관한 진리, 창조주의 의지와 섭리 안에 있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에 관한 진리,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진리가 증언되는 공간이자, 이러한 진리가 삶을 규정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²⁵⁾ 교회가 이러한 공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 적어도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 누구나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며, 방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그 가시적 형태에 있어 다른 사회적 실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누구나 다가와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해야 하며,²⁶⁾ 사회적 실체로서 다른 사회적 실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지각 가능한(경험 가능한) 상태로 사회 안에 존재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해 왔다.

24) 위의 책, 10.

25) 위의 책, X.

26) 이러한 가시적 신체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감춰져 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간의 판단과 파악, 통제로부터는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지각 가능한 사회적 형태가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믿음 공동체와 자신들의 삶의 근원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형태와 그 효력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XI 이하.

1. 복음의 도구인 지각 가능한(경험 가능한) 교회, 그 표지와 제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 진리(참_진실_체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여 이땅에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며, 자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에도 모든 인간과 공동체에 선포되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본질상 복음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 단원에서는 교회는 자유케 하는 복음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헤름스의 교회론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의 근원인 복음

교회의 근원은 복음이다. 교회의 근원이 복음이라는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을 포함한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를 *congregatio sanctorum*이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들이 있어야 하며, 그 거룩한 자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만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죄인인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오직 복음에만 있다. 인간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또는 거룩하다고 여겨지게) 된다. 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과도 연합하여 한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믿는 자들과의 연합이 시작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27) Herms, Eilert, *Gesellschaft gestalten. Beiträge zur evangelischen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91), 3.

28)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IX.

2) 복음의 도구인 교회

교회의 근원이 복음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 역시 복음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렇게 복음에 의해 규정되는 교회의 본질에는 모든 인간과 공동체에 복음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실행하는 도구라는 특성이 포함된다.²⁹⁾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창조주의 능력인 복음은 모든 세대, 즉 과거와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도 선포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에 포함된 언약의 신뢰성을 전세계의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증언할 때만 가능하다.³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살아 있는 복음의 목소리(viva vox evangelii)를 외적인 말씀을 통해 감각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증언을 통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복음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사회적 형태

교회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형태, 더 정확히는 지각 가능한 교회의 사회적 형태 역시 그 근원인 복음의 창조적 역동성에 의해 정초되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형태를 가지는 지각 가능한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게 하는 표지와 이러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복음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지와 한계는 지각 가능한 교회가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29) 위의 책, 3.

30) 창조주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의 연합, 화해,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의지에 관한 진리의 선포 대상이 전세대와 전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가지는 보편적 특성과 일치한다. 4.1장 참조.

31) Herms, Eilert, *Gesellschaft gestalten. Beiträge zur evangelischen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91), 311, 주 34.

생성과 변화 중에도 그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³²⁾

(1) 표지

근원인 복음에서 규정되는 지각 가능한 교회의 표지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능력과 요구에 기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 제공된 지각 가능한 공동체를 인식하고 이에 지각할 수 있도록 응답하라는 요구이자 이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또한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응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고전 11,26) 믿음을 가지게 된 복음의 청자들이 세례를 통해 육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길에 들어서라는(마 28,18b-20; 행. 2,38; 10,46b-48) 요구이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복음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그 근원인 복음에서 유래하며 교회의 역사적 동일성의 근거이다.³³⁾

(2) 한계

근원인 복음에 의해 규정되는 지각 가능한 교회의 한계는 복음의 기념 및 선포의 효력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각 가능한

32) 이러한 정체성의 근거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역사적 삶의 경우에는 이러한 삶의 생성과 변화를 그 원을 통해 맞서고, 그 힘으로 지속적으로 서 있고,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통해 그에 따라 진행되는, 즉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XXIII.

33) 위의 책, XXIV.

교회는 그 자신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직접 역사하는 복음의 기념과 선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복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은 지각 가능한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역할이지만, 그 기념과 선포가 듣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방식과 결과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놓여 있기 때문이다.³⁴⁾

2. 헤름스의 기독교 사회이론: 기독교적인 사회 이해

헤름스에 있어 사회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중심이 되어 계획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지각 가능한 교회 역시 사회적 실체로서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 사회 내의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창발적 발전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은 자유케 하는 복음의 피조물이자 도구인 교회의 본질에 속하기도 한다.³⁵⁾

그런데 창발적인 사회의 발전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게는 사회와 교회에서의 공동생활을 구성하는 조건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³⁶⁾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독교 사회이론이며 그 주된 과제는 사회와 역사의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관찰하고, 이를 개념적,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개인, 조직, 기능체계, 사회가 특정한 확신, 즉 기술 중심적인

34) 위의 책, XXIV 이하.

35) 4장 참조

36) Herms, Eilert, *Zusammenleben im Widerstreit der Weltanschauungen: Beiträge zur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2007), 174 이하

확신뿐만 아니라, 삶과 근원에 대한 확신이란 의미에서 윤리적 확신에 의해 제어된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⁷⁾

이때 기독교 사회이론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발전된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사회 질서의 개념과 범주적으로 연관시킨다. 즉, 이러한 개념을 해당 관점의 지평 안에 세우고 그 안에서 해석하여 사회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회질서는 상호작용 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개인은 행위 또는 상호작용을 하는 인격체로 이해된다. 셋째, 인격체들에게는 사회질서가 이미 주어져 있으며 개인은 행위를 통해 이러한 사회질서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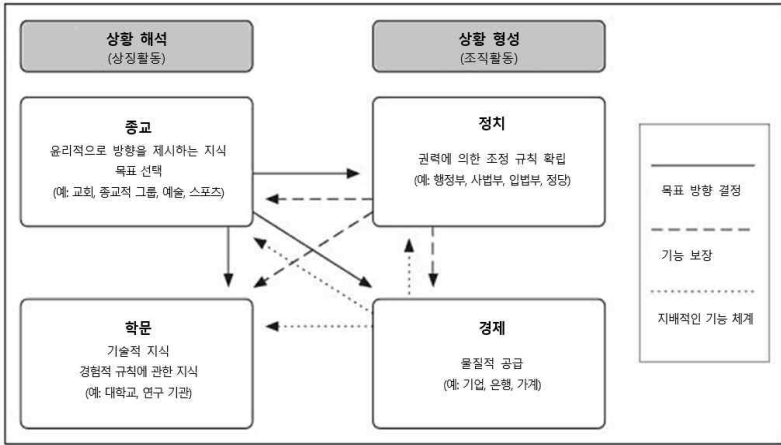
헤름스의 기독교 사회이론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다.

행위는 인격체인 개인의 행동 선택이다. 행동 선택은 개인의 확신을 통해 제어되며 규칙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유형의 결정 상황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선택하여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규칙성은 교육(도야) 과정의 결과이다. 신체를 가진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와 공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다른 인격체와의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가지며 상호작용 규칙으로 발전한다. 이로 인해 신체를 가진 인격체들이 모여 공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규칙은 사회적 체계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사회적 체계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내적 외적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체계, 인간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체계, 선택된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이행

37) Herms, Eilert, *Kirche für die Welt. Lage und Aufgabe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Tübingen: Mohr Siebeck, 1995), XVI 이하

38) 위의 책, 57 이하.

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 체계, 가치와 의미의 지향점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종교 체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 상호작용 규칙³⁹⁾

사회적 체계는 또한 기초적이며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과 특수하며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도 구분된다. 후자에는 조직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가족이 포함된다. 지각 가능한 교회는 종교에 속한 체계로서 종교의 기본 기능, 윤리적·사상적 확신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각 가능한 교회를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지각 가능한 교회는 조직의 특징인 회원 규칙, 기능 체계 내에서의 특수한 기능 수행, 다양한 직책으로의 분화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각 가능한 교회는 자신이 가진 교육 역량을 통해 공동선의 구현에 기여하여 다른 기능 체계와 함께 인간의 공동생활에 공헌한다.⁴⁰⁾

39) Schwyer, Stefan, *Eine kritis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mit dem Kirchenverständnis neuerer praktisch-theologischer Entwürfe*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7), 302.

40) Herms, Eilert, *Erfahrbare Kirche. Beiträge zur Ekklesiologie* (Tübingen: Mohr

3. 참여 방식과 형식상 목표

위에서 제시된 헤름스의 기독교 사회이론에서는 교회가 사회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상 목표⁴¹⁾와 방식은 기능 체계인 종교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지각 가능한 교회가 사회 내에서 종교 체계에 속한 조직 체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먼저 지각 가능한 교회는 종교 체계에 속한 조직으로서 사회 내에서 세계-내-존재인 인간의 상황과 궁극적인 목표에 관한 윤리적-사상적 확신을 제공하고 인간 행동의 목표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 범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당, 정치 단체 등과 같은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역시 포함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가 제공하는 확신은 궁극적 목표에 관한 확신으로 다른 모든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조직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형식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방식은 지각 가능한 교회가 정당이나 행정부, 입법부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조직 체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헤름스에 따르면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조직에 속한 인원이 다른 조직에서

Siebeck, 1990), Herms, Eilert, *Gesellschaft gestalten. Beiträge zur evangelischen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91), Herms, Eilert, *Kirche für die Welt. Lage und Aufgabe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Tübingen: Mohr Siebeck, 1995), Herms, Eilert, *Phänomene des Glaubens. Beiträge zur Fundamental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Herms, Eilert, *Zusammenleben im Widerstreit der Weltanschauungen: Beiträge zur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2007),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41) 형식상 목표는 이렇게 사회에서의 교회의 위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서 유추되지만 내용상 목표는 신학적 성찰 과정을 통해 교회 내부적으로 정해진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떤 조직에 속한 인원이 한 조직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인원이 다른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이 목표를 정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의식해야 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개인은 자기가 속하지 않은 조직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형태에도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²⁾

이를 우리의 주체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당이나 행정부, 입법부와 같이 정치체계에 속한 조직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라 해당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신교인이 정치에 속한 조직에서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만약 어떤 지각 가능한 교회(들)가 이를 필연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해당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어떤 개신교인이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직 구성원의 동의 없이 조직의 목표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우연적이고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각 가능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체계에 속한 조직에 언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조직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하게 되는 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환경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크기는 정치체계에 속한 조직들이 기독교 믿음 공동체를 자신들을 들

42) Herms, Eilert, *Erfahrbare Kirche. Beiträge zur Ekklesi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1990), 75.

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험 가능하다면 그 경험의 성격과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⁴³⁾

4. 구체적인 참여 방식: 복음 선포⁴⁴⁾

헤름스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헤름스는 예수 내러티브 자체가 사회 윤리라고 주장하는 하우어워스⁴⁵⁾와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우어워스에게 헤름스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변의 보편법칙”⁴⁶⁾을 찾는 토대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학자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 발전 과정 기여하는 길이며⁴⁷⁾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복음의 진리/교외 자체의 독특한 모습)의 빛을 통해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⁴⁸⁾ 이 단원에서는 헤름스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43) 위의 책, 76.

44) Lee, Young-Tae, “Evangelium und Gesellschaftsordnung. Zu Stellung und Verantwortung der Kirche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Doctoral diss.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press, 2025), 113-119.

45) 이은창, 이은주, “교회와 주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77.

46)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1(2011), 40.

47) 위의 책, 44, 46.

48) 위의 책, 47.

1)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여 사회 발전 과정에 기여

복음은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선포한다. 이를 통해 청자가 궁극적인 것과 궁극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세계와 삶의 모든 영역(즉 정치, 경제, 기술, 학문, 문화)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궁극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⁴⁹⁾

2)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복음의 주요 특징

첫째, 복음 선포는 단순히 복음을 소개하거나 예수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복음의 선포자가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고 이렇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경험은 다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진 선포자에 의해 선포된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⁵⁰⁾

둘째, 복음 선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단축하지 않고 온전하게 선포해야 한다. 복음을 단축한다는 것은 사회의 요구나 상황에 맞춰 복음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되고 단축된 선포는 학문적인 확신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선포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⁵¹⁾

셋째, 복음은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자의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해 선포된다. 따라서 복음 선포자인 교회는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이

49) 위의 책, 7.

50) 위의 책, 15.

51) 위의 책, 16.

선포하는 내용과 동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즉 믿음의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종교 체제로서 인정받고 존경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⁵²⁾

3) 복음 선포의 대상- 사회 전체

교회는 복음을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직 거둬나지 않는 사회에도 선포한다. 이 두 공동체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³⁾

4) 복음의 빛에 비춰 현재의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사회 발전 과정에 기여

복음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현재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선포된다. 따라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기독교적 확신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해석 과정에서 교회는 그 구성원과 공동체에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공동선이 무엇인지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 기여한다.⁵⁴⁾

5) 예배를 통해 사회 발전 과정에 기여

예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회는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 발전 과정에 기여한다. 확

52) 위의 책, 19.

53)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09.

54) Herms, Eilert,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

고한 정체성이 없는 교회는 다른 조직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목표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하게 되는 환경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의 윤리적·사상적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 기독교적인 삶과 교회의 정체성을 보존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과정에 기여한다.⁵⁵⁾

IV.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기독교 정치 이론: 두왕국론

위에서는 헤름스의 기독교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형식상 목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 내용상 목표에 대해 헤름스의 기독교 정치 이론인 두왕국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하나님의 두 통치 방식에 대한 이론인 두왕국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는 루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터는 이에 관해 체계적인 이론을 남기지 않았으며, 이에 관해서는 논쟁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언급하거나 저술하였기 때문에 루터의 관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었다.⁵⁶⁾ 예를 들어, 파울 알트하우스처럼 두왕국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교회와 국가를 기능에 따라 철저히 분리하고, 교회에게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권력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론으로 간주한다.⁵⁷⁾

하지만 두왕국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서는 교회에게 ‘자기법칙

55) Herms, Eilert, *Kirche für die Welt. Lage und Aufgabe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Tübingen: Mohr Siebeck, 1995), 321.

56) 성석환,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단/교파주의’에 대한 공공신학적 비판”, 『교회와 신학』 82(2018), 134 이하.

57) Schwarke, Christian, “Paul Althaus und die Zwei-Reiche-Lehre,” *Homiletisch-Liturgisches Korrespondenzblatt* 8(1990/91), 141.

성'(Eigengesetzlichkeit)을 가지는 또 다른 창조질서인 국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교회는 나치와 같이 부정한 정권에서는 정치에 이용당하고 오히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칼 바르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와 국가 모두의 이원적 분리를 거부하고 국가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도구인 국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적 유비'⁵⁸⁾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⁵⁹⁾

두왕국의 분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칼바르트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적 현실'⁶⁰⁾이라는 문제에 집중했던 본회퍼는 루터주의자의 경직성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인이 '궁극이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실현'이라는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위임(Mandat: 결혼/가정, 문화, 관현/정치, 교회) 개념을 사용했다. 이 위임들은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관계성 하에서 존재하며 각 위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위임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⁶¹⁾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서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 안에서 타자를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⁶²⁾ 여기에는 또 다른 형태인 정치 역시 해당된다.

헤름스는 루터의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방식, 은혜와 창조의 양방향 관계를 통해 해석하는 바르트의 해석 방식, 그리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58) 김명용, "칼 바르트(Karl Barth)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 『장신논단』 35(2009), 101.

59) 최현범, (2007.12.20.), 바르텐 선언과 한국교회의 사회윤리, 2007, <https://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 2025.12.11.

60) Herms 1995, 28

61) 고재길 "본회퍼의 루터 이해와 한국교회," 『장신논단』 48/4(2016), 55

62) Heck, Alexander, *Grundkurs Theologische Ethik* (Münster: LIT Verlag, 2003), 139.

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을 활용해 자신의 두왕국론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확신이 정치 이론과 현실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윤리적-사상적으로 다원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신학의 과제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가진 확신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관점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학 이론은 정치에 대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기독교인의 의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정치 참여를 통제할 수 있는 통찰력과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론은 소위 두왕국론으로 이 이론은 기독교 믿음과 현실 정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⁶³⁾

1. 두왕국론의 일반적 의미: 은혜의 특수성과 창조 의 일반성

헤름스에 있어 두왕국론은 기독교적 믿음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성격과 역사적이고, 특수하며, 개별적인 성격 간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신학적 진술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간론적인 진술이 서로 만나도록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실존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창조 세계와 피조물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인 개인에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특수하며,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다.⁶⁴⁾

신학적 진술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창조 행위와 선택/구원 행위로 구분

63) Herms, Eilert, *Gesellschaft gestalten. Beiträge zur evangelischen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91), 101.

64) 위의 책 108.

된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모든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창조주의 행위로서 인간 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상황과 조건을 최초로 창조하고 유지한다. 피조 세계 전체, 즉 인간이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의 기본 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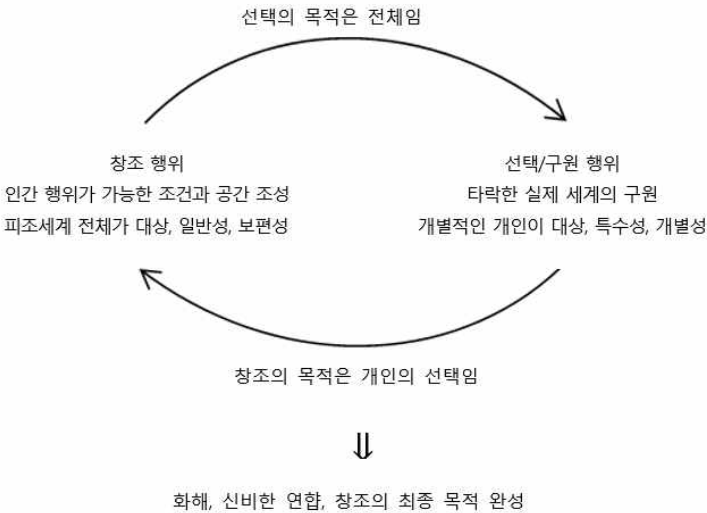
이에 반해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는 신체를 가진 인간의 제한적 자유가 구현되는 장소인 실제 현실 전체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인간과 인간의 행위에 의해 타락한 불의한 현실을 자비로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바로잡는다.⁶⁵⁾ 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과 그들이 자초한 죄악을 향하시고 처리하시며 해결하시는 창조주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는 창조 행위에 기반하며 창조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지만 각기 개별적인 개인을 향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 행위와 구분된다.⁶⁶⁾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용어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이에 상응하는 통치 영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하나님 통치 방식의 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는 토대가 되며 왕국 간의 관계는 통치 방식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 통치는 경험 가능한 실제 현실 세계 전체를 향하는 창조 행위와 개별적으로 피조물을 향하여 구원하는 선택/구원 행위로 구분되며, 이 두 행위는 형식상 서로 상반된다. 형식상 상반되는 이 두 가지 통치 방식 간의 관계가 바로 두왕국론의 주제이며 이는 이 두 통치 방식이 각기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라고 이해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선택/구원 행위에 의해 규정되며 선택/구원 행위는 창조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⁶⁷⁾

65) 위의 책, 109.

66) 위의 책, 111.

67) 위의 책, 111



〈그림 5〉 창조 행위와 선택하는 선택/구원 행위의 관계

이는 위의 그림과 같은 순환 관계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 방향이 중요하다. 첫째, 구원 행위를 통해 창조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즉, 행위의 대상이 전체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의미는 그 대상이 개별적인 개인인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를 통해 명확해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위의 목적이 개별적인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해석된다. 둘째, 창조 행위를 통해 구원 행위를 해석하는 방향이다. 즉, 그 대상이 개별적인 개인인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의 의미는 전체를 향하는/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명확해진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개인의 선택/구원은 전체의 선택/구원을 목표로 하는 창조 행위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선택/구원 행위가 해석된다. 즉, 하나님은 전체를 돌보심으로 개인을 돌보시고 개인을 돌보심을 통해서만 전체를 돌보신다.⁶⁸⁾

선택된 개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헌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반성/보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창조 전체를 향하는 목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는 결국 다른 모든 개인들을 배제한 상태로 개별적인 개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해진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연합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합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은혜의 왕국이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연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맥락과 토대 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⁶⁸⁾

결국, 두왕국론은 하나님의 두 가지 행위 방식, 즉 보편성을 가지는 창조 행위와 특수성을 가지는 선택/구원 행위 간의 차이와 상호 관계에 관한 이론이며, 동시에 은혜가 인간의 실존 방식, 행위, 상호작용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구원 행위에 대한 해석에서는 특수성, 개별성에 대한 긍정을 통해 양심/종교의 자유 및 다원적인 사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해석에서는 연합/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단절되고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는 역사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이론, 즉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비로운 행위에 의해 규정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관한 이론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68) 위의 책, 114

69) 위의 책, 115.

서는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겠다.

2. 두왕국론: 윤리적-사상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요구하는 기독교 정치 이론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는 사회생활 태도와 그 운영 방식,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상호작용과 공동체 질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동체 질서의 형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은 정치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기독교 정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간 공동체 질서, 즉 공동선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법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헤름스에 따르면 공동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특별한 점은 ‘윤리적-사상적 확신과 이러한 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계시에 의해 형성된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사상적 확신과 이러한 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계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 윤리적-사상적 확신의 우연성, 주관성, 특수성,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⁷⁰⁾ 그 이유는 어떤 개인이 계시를 믿게 되는 과정과 그 믿음에 속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원 행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에게서 일어난다. 그 행위에 대한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개인에게 이 과정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그 과정을 강제로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과정은 각 개인이 처한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일어난

70) 위의 책, 119.

다. 이렇게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확신 절대자에 의해 규정된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표를 포함하며 다른 어떤 목표에도 우선하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구원 행위의 대상으로 개별적인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특별함은 특정한 개인이나 신념 공동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된 모든 개인이 이러한 특별함을 누리기를 바라시며 이미 이러한 특별함을 누리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를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행위	왕국	해석 방향	인간의 행위
창조	자연/세상의 왕국	선택에서 창조	특별함을 모두에게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 행동 다원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 행동
은혜	하나님/은혜의 왕국	창조에서 은혜	개개인의 특별함의 인정 개개인의 확신 존중 개개인의 자유 행위 존중

〈그림 6〉 두왕국론

두왕국론은 이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행위/통치 방식의 구분과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의 구분을 통해 이 두 요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선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은혜의 왕국에서의 실존 방식인 특별함을 세상의 왕국에서 통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가치가 되도록 한다. 하지만 이때 두왕국론은 자신의 보편적 진리 주장을 부정하거나 다른 모든 윤리적·사상적 확신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과 윤리적·사상적 확신들이 가지는 우연성, 주관성, 특수성 및 절대적인 구속력을 계시에 기반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⁷¹⁾

71) 위의 책, 120 이하.

이러한 윤리적-사상적 다원성에 대한 인정 자체가 기독교 확신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교회는 항상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원칙적인 윤리적-사상적 다원주의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는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선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⁷²⁾

이러한 의미에서 두왕국론은 기독교 정치에 대한 신학적 제어이론으로 기독교와 신학이 다원적 질서를 옹호하는 기독교적 정치 형태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이 이론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삶에 대한 설명에 인간의 상호작용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즉 사회의 공동선에 관한 진술을 포함시킨다. 두왕국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결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을 향하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공동선을 옹호할 것을 요구한다.

V. 헤름스의 사회윤리학과 한국 교회, 그 시사점과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지금까지는 헤름스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회윤리학을 체계적이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의 이론이 한국 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과 그의 이론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2) 위의 책, 123.

1. 시사점

첫째, 헤름스는 이성적 작업인 이해에 근원사태를 포함시켜 신앙 역시 그 진리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사태진리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즉, 기독교적 믿음의 내용 역시 지시(약속), 예상, 적중 여부 검증이라는 이해 과정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확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설명은 신앙과 이성이 대립을 부각시키면서 신앙에서 이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일부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시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헤름스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복음 선포라고 규정한다. 자유케 하는 복음에 의해 세워지고 그 도구인 교회는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한국 개신교 목사나 교회처럼 시위를 조직하거나, 정당을 만들거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으며, 잘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유를 헤름스는 잘 보여준다.

셋째, 헤름스의 두왕국론과 사회윤리학은 교회가 정치과정에 참여할 때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다원화된 사회의 구현(은혜의 개별성), 사회 구성원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질서의 구현(창조의 보편성), 지배 관계가 없는 네 기능 체계 간의 관계 구현(예: 경제에 의한 종교나 학문의 지배), 정치 참여에 친화적인 사회 구조인 민주주의의 구현(현재로서는 앞의 세 기준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 등이 바로 그러한 기준이다.⁷³⁾ 이렇게 신학 이론을

73) Lee, Young-Tae, "Evangelium und Gesellschaftsordnung. Zu Stellung und Verantwortung der Kirche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Doctoral diss.

통해 공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의 한국 개신교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교회(대체로 보수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 선거할 것, 동성애 반대, 사학법의 개정 또는 재개정 반대 등과 같이 대체로 어떤 개인의 선출이나 정책에 '반대'였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모습이나 지켜야 할 가치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적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헤름스의 사회윤리학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현대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학 역시 다원화된 사회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이론들 전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헤름스의 두왕국론은 각 개인이 절대불가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이러한 확신의 다양성을 거부하거나 나와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한 가운데 다른 확신과 경쟁을 해야 한다. 다른 확신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하고, 복음 선포에 적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헤름스의 사회윤리학이 현재의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이유다.

2. 해결해야 할 문제

헤름스의 사회윤리학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커뮤니케이

선(헤름스는 이를 상호작용으로 해석)이라고 간주하는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헤름스에 따르면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은 자아가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루만의 일반 체계이론에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타자준거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타자가 자아의 정보에 반응하였을 때만 성립한다. 만약 타자가 나의 행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출발한 어떤 행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못한다.⁷⁴⁾ 이와 반대로 무의식 중에 발현된 나의 몸짓이나 눈짓이라도 타자가 반응을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험된다. 아무 생각도 없던 나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 클릭 하나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곤 한다. 반대로 나의 의도적인 행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못 받을 경우가 많다.

헤름스의 사회이론에서 행위자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윤리학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의 실제 현실에 대한 보나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파트너인 타자의 반응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I. 나가는 말

기독교인에게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의 경험은 그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은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74) 정보, 통보, 이해로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통보하는 주체는 타자이니 자아가 아니다. 여기서는 타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철, "구조/행위 대립 극복으로서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철학」 한국사회학 45/5(2011), 160.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며 자신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며,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자신이 가진 근원에 대한 확신의 절대적 구속력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진 확신의 절대적 구속력 역시 인정한다. 은혜와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구체적인 상태 역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는 각 개인이 가진 이러한 확신의 절대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렇게 개인이 가진 근원에 대한 확신의 절대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는 다원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다원적 사회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는 다원적 사회이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본질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의 구현이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의 공동선에 대해 논의하는 기독교 사회윤리 이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헤름스에 있어 두왕국론은 이러한 사태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 반면 사회이론은 사회의 현실과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교회는 상호작용을 기본 요소로 하는 사회 체계에서 그 기능 체계 중 하나인 종교에 속한 조직체로서 윤리적-사상적 확신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각 가능한 교회는 교회의 표지 및 제약 준수를 통해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1.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역시 자연이나 자신의 포함한 인간 사회에서 형성된 확신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이해 과정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 이미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3.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다원성의 존중이 정치적 선택에서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 사회적 실체이자 종교

체계에 속한 조직으로서 다른 조직들, 특히 정치체계에 속한 조직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 교회를 존중하기 위해 교회가 중시하는 가치인 개인의 특별성 및 다원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길. “본회파의 루터 이해와 한국교회.” 「장신논단」 48/4(2016), 38 - 62.
- 김명용. “칼 바르트(Karl Barth)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 「장신논단」 35(2009), 75-108.
- 김장생. “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 「문화와 사회」 28/3(2020), 139-188.
-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21(2011), 31-70.
- 배덕만.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3.” 「한국교회사학회지」 43(2016), 175-224.
- 배식한. “진리, 진실, 참.” 「철학」 84(2005), 129-155.
- 木田元, 野家啓一, 村田純一, 鷺田清一. 現象學事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b), 2011.
- 성석환.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단/교파주의’에 대한 공공신학적 비판.” 「교회와 신학」 82(2018), 128-148.
- 이은창, 이은주. “교회와 주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71~100.
- 이철. “구조/행위 대립 극복으로서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철학」 45/5(2011), 143-167.
- 최현범. (2007.12.20.), 바르멘 선언과 한국교회의 사회윤리, 2007, <https://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 2025.12.11.
- Heck, Alexander, *Grundkurs Theologische Ethik*, Münster: LIT Verlag, 2003.
- Hermes, Eilert, *Erfahrbare Kirche. Beiträge zur Ekklesi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1990.
- _____. *Gesellschaft gestalten. Beiträge zur evangelischen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1991.
- _____. *Kirche für die Welt. Lage und Aufgabe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Tübingen: Mohr Siebeck, 1995.
- _____. *Phänomene des Glaubens. Beiträge zur Fundamental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06.

_____. *Zusammenleben im Widerstreit der Weltanschauungen: Beiträge zur Sozialethik*, Tübingen: Mohr Siebeck, 2007.

_____. *Kirche - Geschöpf und Werkzeug des Evangeliums*, Tübingen: Mohr Siebeck, 2007.

_____. *Kirche in der 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Lee, Young-Tae, "Evangelium und Gesellschaftsordnung. Zu Stellung und Verantwortung der Kirche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Doctoral diss.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press, 2025).

Schwarke, Christian, "Paul Althaus und die Zwei-Reiche-Lehre," *Homiletisch-Liturgisches Korrespondenzblatt* 8(1990/91), 141-152.

Schweyer, Stefan, *Eine kritis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mit dem Kirchenverständnis neuerer praktisch-theologischer Entwürfe*,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7.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사회적 실체로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지각 가능한 교회에게 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다원화된 현재 사회의 역동적인 구조와 역사적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던 아일러트 헤름스의 사회이론과 두왕국론을 소개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에서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헤름스의 사회이론 교회 정치 참여의 형식적 목표를, 두왕국론은 내용적 목표를 제시한다. 전자에서 교회는 사회의 기능 체계 중 하나인 종교에 속한 조직체로서 진정한 교회가 됨으로써 다른 기능 체계(정치, 문화, 경제)에 속한 조직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방식인 은혜/창조, 개별성/보편성에 관한 이론으로 교회가 다원화된 사회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헤름스의 주장과 요구는 정치참여로 인해 사회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는 일부 교회에게 자신들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해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주제어: 아일러트 헤름스, 교회의 정치 참여, 복음, 사회 윤리, 두왕국론, 다원화
